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배포 일자	2022년 9월 4일(일) 총 2매		
담당 부서	수산자원 연구소	담 당 자	• 자원조성팀장 정은주 ☎440-6402 • 담당자 최민철 ☎440-6410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어린 꽃게 115만 마리 방류
- 꽃게 자원량 회복을 위해 강화 주문도해역에 방류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서해안 꽃게 자원 회복을 위해 9월 2일 인천 강화 주문도해역에 지역 어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생산한 어린 꽃게 115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꽃게는 옹진군 영흥해역에서 어미 꽃게 확보 후, 관리해 8월 초순에 부화한 것으로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전염병 검사를 통해 건강한 수산종자로 판정된 1cm 이상의 우량 수산종자다.

인천은 꽃게 서식·산란에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전국 꽃게 생산량의 38%를 차지하는 국내 제일의 꽃게 산지이며, 꽃게 자원량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방류사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천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2003년부터 작년까지 인천해역에 꽃게 3,030만 마리를 생산해 방류 했다.

최경주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방류 사업은

어업인 소득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올해 꽃게·참조기·주꾸미·갑오징어 등 295만 마리의 우량 수산종자를 자체 연구 생산하여 방류했다” 며 “앞으로 바지락 60만 마리, 참돔치 15만 마리를 추가로 방류할 계획이며, 인천지역 특산품종의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참고 사진> 꽃게 방류 사진 현장 사진

